

八 全體會議

7月22日(日) 午後4時

會場：中央教育研究所 講堂

1. 韓國의 圖書館教育에 關하여

明 在 暉(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司會 李鍾文(圖協 事務局長) = 다음은 식順에 따라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專任講師로 계신 明在暉先生으로부터 韓國의 圖書館教育에 關해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明在暉(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 圖書館教育에 關한 問題를 가지고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圖書館學校의 必要性에 關해서입니다.

오늘날 世界 여러나라에서 보는바 「圖書館學校」라는 하나의 特殊한 學校가 存在하기에 이르는 理由를 알아보는 것은 그다지 힘든것은 아닙니다. 지난 世紀 以來 人類의 知識은 急激한 速度로 增大해 가고 있으며 每日같이 새로운 事實이 發見 發明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知識의 容器이며 知的活動의 行跡을 記錄하는 圖書 및 其他 印刷物等の 文獻이나 視聽覺의 資料의 生産은 實로 驚異할만한 量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資料中에서 어느 特定的分野에 關한 것만을 蒐集하고 保存하는 일만을 한다 손치더라도 決코 만만한 일은 아닐것입니다. 하물며 國民들의 教育水準이 높아지고, 民主主義의 思考와 方式이 널리 普及되어 大衆의 누구나가 公平한 知識探求의 機會

自由스러운 情報源泉에의 接近을 願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圖書館의 概念이 保存과 特殊層에 限定된 接近인 것으로 되어 있던 舊時代의 것으로부터 平等한 利用과 容易한 使用을 爲한 奉仕를 爲主로 하는 세것으로 바뀌진 今日에 있어서는 一層더 圖書館員들의 技術的, 奉仕的, 即 專門職的 修練이 要求된다는 것은 손쉽게 理解되는 일 입니다. 19世紀 初葉에서는 圖書館運營의 必要한 技術事項을 見習(Apprentice-ship)으로 배우기를 試圖한 圖書館들의 例를 冊子를 통해 압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圖書館學도 하나의 두렷한 學으로서 다른 專門職的分野 例컨대 醫學이나 法律學처럼 見習이나 實習만으로 滿足하게 배워질수 없는 것이며 學校教育을 통해서 비로소 成就될 수 있는 것임이 이미 여러 先進國家에서 例證되고 있습니다. 美國에서는 1887年 콜럼비아大學內의 圖書館學校創設을 筆頭로 繼續하여 많은 圖書館學校가 各大學에 세워졌습니다. 今日에 와서는 34個의 認可된 圖書館學校에서 每年 約 1,500名에 가까운 圖書館員을 輩出하고 있습니다. 美國及 其他 나라에서 圖書館教育을 오늘의 것으로 發展시키는데 겪은 좋은 經驗은 우리의

後進性を克服하기 爲한 飛躍을 爲하여 많은 힘이 될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圖書館學校를 어디다 設立하는 것이 妥當한가 하는 問題입니다. 다시 말하면 大學校內에 두느냐, 다른 機關에다 附屬시키느냐, 하는 等々の 問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職業은 하나의 專門職인것입니다. 暫間 Profession의 特徵이란 무엇이었는가 보기로 합시다. Profession이란 널리 國民을 相對로 奉仕를 하는 職業입니다. Profession이란 高等教育을 받을 것을 要하는 職業입니다. Profession이란 그 職業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繼續工夫해야만 遂行되는 職業입니다. Profession에는 文獻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Profession은 民衆의 尊敬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이밖에도 Profession을 特徵짓는 많은 事項이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圖書館員의 職業은 正確히 Profession에 하나인것입니다. 圖書館事業의 中堅이 되는 일꾼들의 身分과 待遇를 書記的인 것으로부터 專門職的인 것으로 引上해야 함은 우리가 當面하는 時急한 課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까닭으로 圖書館學校가 그안에 設立되는 設立體 自體의 社會的 位置와 既成名聲을 無視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大學校의 좋은 名聲은 그 大學校 卒業者들의 名譽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大學校들 보다 더 높은 教育機關이 없고, 大學校들은 名聲이 或은 評判이 나쁘지 않는限 大學校內에서 圖書館教育을 하게 됨은 至極히 妥當하며 뒤집어 말해서 圖書館教育을 大學校밖인 다른데서 行함으로써 卒業者들의 將來 名聲의 損失을 招來할 必要는 없는것으로 믿

습니다. 圖書館教育을 大學校에서 하는데는 다른 많은 利點들이 뒤따르는것도 알아 보아야 하겠읍니다. 卽 圖書館學 專攻科目外的 다른 教養科目들, 直接, 間接으로 圖書館學과 關聯되는 많은 他科目을 같은 場所에서 容易하게 履修할 수 있으며 大學校에 附隨하는 模範의 圖書館施設의 利用이 可能하며, 教授上 必要한 施設의 共通利用이 可能한 點을 例學할 수 있습니다.

圖書館學과 圖書館事業의 曙光이 우리나라를 비치기 始作한 무렵부터 梨花와 延世 兩大學에 圖書館學 鍊磨의 象牙塔을 確固히 세운 것은 앞날의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을 保障해주는 吉事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 두 大學校는 모두 將次的 圖書館界의 需要에 伸縮性있게 順應할 萬般의 準備를 갖추는 中인 것으로 確實히 알고 있습니다.

延世大學校의 圖書館教育에 關해 簡略히 말씀해 보겠읍니다. 延世大學校의 圖書館學科와 韓國圖書館學校는 1957年 봄에 비롯되었습니다. 그 當時를 回想하여 지금은 美國에 돌아가 계신 Swiger 先生과 Elrod 先生이 우리 韓國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만치 熱心히 學校일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던 모습이 眼前에 선합니다. Swiger 先生은 Peabody 教育使節團의 最初の 圖書館分野 擔當專門家이었고 Elrod 先生은 Peabody 大學 圖書館學校를 卒業後, 宣教師로 來韓하여 延世大學校 圖書館의 技術的貢獻을 크게 남기신분입니다. 1957年 4월에 開講을 본 圖書館學校의 特殊一年 課程에는 大學院課程履修를 目標했던 3名의 大學院生을 合쳐 15名이었습니다. 이들 中에서 大學院 圖書館學科

第1號의 卒業狀을 李載喆先生이 받고, 1年課程 第1號修了證을 金泰律先生이 갖고 계십니다.

其後부터 今월에 이르기까지 第4期修了生을 내고 中止狀態에 있는 1年課程을 마치신분이 都合 97名, 第5期修了生을 내고 今夏에 第6期에 접어드는 8週間 司書教師課程을 마치신분이 93名, 大學院卒業生은 李載喆先生과 李明喜女士의 2名, 第1,2期 4年制正規大學課程 卒業者 21名, 모두 합쳐서 223名이 延世大學校에서 各種의 課程을 마치시고, 거의 모두가 現在 全國各種圖書館에서 中堅的 任務를 擔當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Peabody 使節團 圖書館專門家로는 New York 州立大學校 教育大學 圖書館學科長 Burgess 教授가 約 2年半 동안, Swiger先生을 뒤이어, 圖書館學校 및 圖書館學科로서의 體裁와 內容을 充實히 갖추는데 盡力하시었고 그분의 뒤를 이어 Croslin 先生이 지난 滿1年동안에 延世大學校 大學院生을 爲한 講義圖書館法案作成을 爲한 끈기있는 指導와 地方講習會를 全國各道에서 主催하시면서 赫赫한 功勞를 남기시고 明日 歸國壯途에 오르게 되십니다. 出發을 앞둔 最後의 날까지 圖書館事業을 爲해서 奔忙하시는 모습은 우리들 圖書館인의 가슴에 기리기리 아로새겨져 있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다음으로 延世大學校 圖書館學校에서는 또한 圖書館學科에 있어서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勿論 圖書館學專攻科目은 一般的 基礎教育위에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即 圖書館인이 되려면 언젠, 어데서, 어떻게 배웠던간에 반드시 高等教育을 받은 知識人으로서의 바탕이 必須的인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 제각기 水準을

달리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專攻科目을 爲해 大學2年修了가 最低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水準이 높아져서 오늘날 美國에서 처럼 大學 4年卒業者를 基盤으로 할날이 머지 않은 將來에 올 것을 豫想하는 바입니다.

各種圖書館의 本質的 要求에 따라 圖書館教育의 커리큘럼이 影響받는 것도 事實이지만 各個圖書館의 特殊性에 相關없이 그 圖書館들에 共通되는 一般的 目的事項이 있듯이 圖書館 學校마다 共通되는 中核的 Curriculum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圖書館은 書籍과 其他 資料를 選擇하고 購入해야 하며, 그것을 分類하고 目錄해야 하며 參考奉仕를 提供하며 書誌의 奉仕를 提供해야 합니다. 모든 圖書館은 모두 效率의 奉仕를 爲해서 組織과 管理를 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圖書館은 顧客들의 讀書向上을 爲하여 不斷한 關心을 持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다음에 列舉하는 科目은 거의 어느 圖書館學校에서나 가르쳐져야 할 必須的인 것으로 믿습니다. 即

圖書選擇 及 圖書購入

分類 及 目錄作成

書誌及 參考業務

圖書館의 組織과 行政

對讀者 關係業務 等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圖書館學校에서 共通的으로 가르쳐지는 科目들이 더러 있는 것도 보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圖書 및 圖書館史, 圖書館學概論 등이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共通的大綱은 以上과 같다 할지라도 地域的, 國家的要求 또는 學生이 將次 服務할 各個圖書館의 特殊性에 따라,

가르쳐지는 內容은 多分히 變動이 생기고 修正 되어갈 것입니다. 콜럼비아大學校 圖書館學校의 比較圖書館學講座에서 콜링즈博士는 그 地域에서 要하는 圖書館員의 教育은 그 地域에서 이루어져야만 滿足스러운 것임을 거듭 強調한바 있습니다. 即 韓國의 圖書館員의 教育은 韓國內에서만 滿足스럽게 이루어진다는 意味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萬一 한 圖書館學校의 카리큘럼이 또는 科目의 內容이 지나치게 다른 나라의 것을 模倣하기를 일삼고 地域的 要求와 特殊性의 考慮가 不充分하다면 위의 콜링즈博士의 主張은 그러한 圖書館學校에는 該當함을 것입니다.

그러면 延世大學校에서는 위에 列擧한 必須的 科目을 가르침에 있어서 얼마나 韓國的 特殊性이 加味해졌는가 그러하기 위하여 어떠한 苦衷들을 느껴오고 있는가에 關하여 科目 몇個를 들어 말씀드리고 未備한點, 拙劣한 點들의 指摘과 是正을 爲한 여러분의 高見을 바라고져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圖書選擇 및 圖書購入입니다. 이 主題는 原則과 理論에 關한限 外國것을 많이 빌릴 수 있고, 美·英의 圖書 및 外國圖書購入을 爲하여는 外國에서 쓰이는 書誌的 틀(tool)을 必要한 만큼 가르쳐야 할 것으로 압니다. 外國의 代表的인 選擇의 書誌 또한 全國의 書誌들이 必要에 따라 잘 紹介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出版物이나 資料에 關해서는 거의 固定的 書誌와 書目이 없음을 우리가 周知하는바이며 KLA는 모름지기 速히 書評委員會나 圖書選定委員會를 두어 選定 圖書의 目錄書나 書評發刊으로 會員圖書館에게 奉仕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깁니

다. ALA에서는 ALA Bulletin 發刊보다도 2年이나 앞서 1905년에 選定圖書 紹介誌인 Booklist를 創刊한 事實을 注目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全國書誌의 出現을 爲하여 早速히 措處가 있어야 할 것이고 然後에야 各圖書館에 있어서 우리나라 資料의 選擇이 正常的軌道에 오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圖書의 分類와 目錄作成에 關하여 一言하고져 합니다. 이 主題는 가장 많은 學點數를 配當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圖書館學徒들은 分類의 歷史나 理論에 關한 概論이나 各種分類法의 利點, 不利點等을 比較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著名한 分類法의 全般的 把握을 시키도록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自己나라에서 가장 흔히 使用되는 分類表의 重點의 指導도 疎忽히 할 수 없습니다. 延世大學校에서는 D. D. C를 重點의 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勿論 이것은 美國에서 쓰이는 D. D. C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나라 事情에 맞도록 修正展開하여진 것입니다. 앞날 D. D. C 외에 다른 分類法이 D. D. C를 代身하여 많이 우리나라에서 愛用이 된다면 D. D. C보다 새로운 分類法敎授에의 置重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圖書館教育機關은 恒常 時代的, 地域的 要求에 追從하는 것만을 能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를 先導해나가야 하는 것도 任務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東洋書의 編目과 西洋書의 編目を 爲하여 同一한 時間數가 配當되어 있지만 兩쪽 모두 ALA의 著者, 書名記入에 關한 Code 와 L. C.의 記述目錄 Code에 基準한 方法을 擇하고 있습니다. 主題名目錄을 爲하여는 李載喆先生의 勞作인 主題名標目表가

刊行되었으므로 앞으로急速한 進展이 있을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著者記號로서는 Cutter, Cutter-Sanborn 李載喆式, 張一世式, R.C.式等 모두 골고루 익히도록 해야 肅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參考書誌에 關해 말씀드리면 基本參考圖書를 가르키고 나서 더욱 詳細하게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3部分으로 나누어 가르쳐지며, 西洋書誌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新刊으로 나오는 參考圖書들이 追加되어 가르쳐집니다. 東洋의 古典들을 爲하여는 韓國圖書解題及 東洋圖書解題의 二科目이 設定되어 있습니다. 參考奉仕의 概念을 體得시키기 爲하여는 先進國家에서 刊行된 書籍과 論文記事를 읽도록 指導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圖書館組織과 行政(또는 管理)에 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圖書館의 全面的奉仕의 效果는 크게 그 命令系統과 組織 및 行政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人은 圖書館의 行政 및 組織等에 關한 基本的知識을 必須的으로 習得해야 할줄 압니다. 圖書館의 行政의 組織의 傾向, 各種의 組織方式이 갖는 長短點, 人事行政의 原則的理論, 財政運用의 方法, 建物の 設計와 管理等 모두 專門職의 圖書館員으로서 알아둘 必要있는 事項들입니다. 그러나 圖書館의 種型에 따라 細分되어 들어가면 各其 많은 差異點을 나타내므로 「圖書館의 組織과 行政」이란 基本的이고, 原則的인 內容을 가르치는 科目이 履修되고 난 뒤에, 「大學圖書館行政」「公共圖書館行政」 및 「學校圖書館行政」의 3科目을 通하여 各分野마다의 特徵의 事理를 究明시키도록 指導하고 있습니다.

識者들 中에서도 圖書館教育이라면 一方的인 技術教育만인것으로 誤解하는 분들이 있음을 平素에 보아오는 일입니다. 圖書館學徒의 全部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中의 많은 사람이 將次 各種圖書館을 管理 運營해야할 館長의 職責을 지녀야 할것이라는 事實을 正視하고, 그들의 教育期間 동안에 管理者로서 必要한 素地를 장만하고 給려주는 일을 疎忽히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圖書學資料에 關한 이야기로 옮겨볼까 합니다. 美國의 몇 圖書館學校를 視察할 機會를 昨年에 가졌었지만 한가지 매우 부러운 것은 거의 學校마다 充足한 資料를 所藏하고 있어 學校敎課運營에 不便이 없어보인 點입니다. 콜럼비아大學校 圖書館學校에는 圖書館學 藏書가 約 7,8萬卷 있었고 조지·피바의大學 圖書館學校에도 冊이 1萬5千卷可量, 받고 있는 雜誌가 250種 可量 있었던 것으로 記憶합니다. 延世大에서는 每年 피바의援助를 받아드리는 冊과 延世大圖書館이 購入해오는 것을 合쳐서 相當히 增加해지고 있지만 아직 前途遼遠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資料의 未備는 자칫하면 注入式講義로 授業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때문에 早速한 時日內에 所要量을 갖추도록 努力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이 外國資料를 읽어내어야 하는 學生의 實力입니다. 워낙 資料의 內容이 美國의 大學校나 大學院生에게 읽혀지는 程度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므로 우리 學生들에게는 벅차게 느껴질것이고, 論題의 方向이 우리의 實情에 꼭 들어맞지 않는 것도 없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로 되는 圖書館學文獻을 發展시

켜내는데 이러한 問題點이 緩和되리라고 믿습니다. 프로雜誌에 실려지는 훌륭한 記事들은 그야말로 Silent teacher로서 기리 圖書館學徒들을 가르칠 것이므로 先輩 여러분들의 많은 發表를 期待해마지 않습니다. 日本圖書館學 冊이 市中에 나뉘나 다만 日語읽기가 英語읽기보다 힘들어 하는 學生이 從前까지는 꽤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圖書館이 相當量의 日書를 사드리고 있는 形便을 아울러 考慮한 끝에 速成日語課程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結果는 評價될 段階에 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質的教育에의 指向에 關하여 말씀드리고 저의 말을 끝맺겠습니다.

Quality Education (質的教育)이란 말은 這間 教育界에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術語로 되어 있습니다. 民主主義 思想의 漸高와 더불어 教育에 對한 平等한 門戶開放으로 量的 教育이 생기자 學徒의 平均水準과 先生의 平均水準이 모두 低下되는데서 오는 教育質의 低下는 免키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圖書館教育에 있어서는 圖書館 本來의 使命이 水準높은 專門職에 依해서만 滿足하게 達成되는것임을 前提할때 圖書館教育의 質의 保障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러기 爲하여는 먼저 圖書館學科를 志願해 오는 學生의 水準을 높게 維持해야 할것입니다. 優秀한 志願者들이 모여들게 하는데 여러 길이 있겠지만 重要的한 한가지는 卒業後 그들의 進路가 洋洋하고 曠乏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Over production이 없이 되어 卒業後 求職이 힘들어 安價한 待遇에 妥協해 버리는 일이 없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美國에서 每年 約 5,

000名의 圖書館學校出身을 全國圖書館이 要求하고 있다지만 圖書館學校 卒業生이 年 1,500名程度 밖에 輩出되고 있지 않는다는 事實이 卒業後에 就職은 매우 容易케 하고 따라서 圖書館學校에 志願者의 水準도 높게 維持되고 있음은 크게 參考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圖書館先輩 여러분들은 後進들의 卒業後의 指導를 爲하여 格別히 協力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려 아울러 付託드립니다. 延世大學校에 志願해 오는 圖書館學科 學生들의 成績水準이 每年 높아져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도 上昇이 繼續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僥倖히 今年은 圖書館法 制定을 바라는 해입니다. 法의 制定과 더불어 圖書館員의 需要가 부쩍 늘어 Over production의 憂慮가 雲散해 버리도록 願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아무리 學校施設이 좋고, カリ큘럼이 優秀하고, 資料가 많고, 優秀한 學生이 모여 있어도 先生이 變변치 못하면 教育의 質이 높아질 수 없는것도 明白한 일입니다. 모름지기 師表가 될 사람은 強力한 推進力과 寬容과 指導力이 兼備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圖書館學이란 記錄物의 形態를 取한 人間에 關한 모든 것을 取扱하는 學問이기도 하므로 博覽多識하며, 모든 學問分野에 關한 基本的 理解가 있는者일수록 適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專攻分野에 關한 限 참으로 優秀한 經驗을 가진 能手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卓越하신 여러 先生속에 한몫 끼어 있는 제 自身을 回顧할 때 이 모든것의 하나도 具備치 못하면서 敢히 敎職의 一席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優秀한 後進의 進出을 기다리는 동안
번번히 못한 力量이지만 있는것 기우려볼
作定으로 있습니다.

◎司會者 李鍾文(圖協 事務局長)=다음은
建議文을 採擇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圖書館協會에 對해서 公開의으로 討議해
보자, 이런 問題가 들어왔는데 그럼 約 5
分假量 時間을 내어서 圖書館協會의 問題
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別로 생각이 없으신 模樣인데 그럼 圖
協事務局에서 여러분에게 付託말씀 몇마
되 드리겠습니다. 이問題의 議論은 建議
文採擇前에 하는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圖書館協會는 定款으로 여러분이 아시다
시피 圖書館專門職 司書의 總聯合體입니
다. 圖書館協會가 發足되어가지고 오늘날
까지 걸어오는데 많은 隘路가 있었습니
다 事務局으로서 付託 드리고 싶은것은 圖
書館協會는 圖書館人들의 名實相符한 聯合
體가 되는데에는 여러분과 意見을 交換하
는 것이 活潑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活潑
히 意見을 交換하는 길로서는 圖協月報가
한가지이고 그 다음은 個人的인 書信으
로 連絡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가 圖書館協會에서 일을 하면서 보
니까 圖書館에 일이 만 分野보다 水準이
높은 分野라는것을 自負하고 있으면서도
亦是 公文 한장만 내는 것으로는 일이 안
됩니다. 圖協에서는 非賣品으로 發刊되는
冊을 蒐集해서 여러분 圖書館에 無料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册마저 안찾
아 갑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圖書館協會
에서 必要로하는 資料라던지 이런 것으로
해서 公文을 띄우면 反應이 없습니다. 그
래서 相當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事務局職員이 給仕까지 5名입니다. 하

고 있는 일은 國內的인 問題부터 國際的
인 問題로서 아주 罪悚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정말인지 아
닌지 몰라도 官廳에서 보고 感嘆하고 있
습니다. 千4百萬圓이 今年 經費인데 그것
이 假想的인 要素를 多分히 包含하고 있
습니다. 現在 實行豫算으로서 實際로 움
직일수 있는 돈이 政府補助金 73萬圓까지
包含해서 그것이 새돈으로 百萬圓程度에
서 運營되고 있는데 이 圖書館協會는 여
러분의 事業을 爲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團體입니다. 또 圖書館協會의 任員은 여
러분의 손에 依해서 每 2年마다 選出합니
다. 또 事務局長은 理事會에서 認准을 받
아야되는 運營과 組織이 民主的으로 되어
있는 團體입니다. 여러분이 會費를 내시
고 여러분이 願하시는 事業을 圖書館協會
自體나 事務局에서 疎忽히 하면 嚴然히
여러분의 손으로 是正할 수 있는 團體입
니다. 그러니 罪悚하지만 協會費를 周旋
해서 速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 말씀드렸지만 編目規則을 今年에는
30%를 完成해야 됩니다. 現在 技術委員
들에게 強制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圖書館用語集 그것은 今年
內로 編纂해서 刊豫定입니다. 政府가 疎
忽하다는 等等 不平할 수 있지만 우리 自
신이 우리의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생
각해 볼때 부끄러운 點이 있습니다. 우리
에겐 지금 우리의 標準 分類標가 없고 編
目規則이 없고 우리의 것이 없는데 우리
가 外國에 對하여 우리는 圖書館人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간지러운 點 없지 않
습니다. 編目規則은 今年에 30%를 月別
事務進度表에 依해서 完成해야 되는데 이
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協助가 없이는 達成

되기 어렵습니다. 그點 留意하시고 돌아가셔서 團體會費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손으로 이땅에 發展을 가져와 스스로의 地位를 向上시키도록 努力해야 하겠습니다.

個人會費는 月報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圖書館協會에서 이번에 現職者中 實務經驗 몇年 以上이면 全體會員中에서 몇%가 救濟된다는 數字的인 統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月報에서 여러분에게 周知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會員登錄을 7月31日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個人會費 百원으로 登錄을 해주셔서 많이 救濟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閣令을 制定하는데 그 統計를 資料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順序에 따라 建議文을 採擇하겠습니다.

2. 建議文 採擇

金世翊(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學科 專任講師)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專任講師로 계신 金世翊先生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내 박수)

◎金世翊=建議文은 지금까지 連2日間 討議한 가운데서 建議할 事項等을 주려서 作成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大會이름으로 採擇하는 것을 提案하고 建議事項은 委員會를 따로 構成하여서 하는것이 어떨지?(……모두찬성) 그럼 決議文을 朗讀하겠습니다.

決議文

國家再建, 民族文化中興의 旗幟를 높이는 革命隊列속에서 圖書館文化不毛의 이 나라 各處에서 일하는 우리圖書館人 243名은 1962年 7月21日과 22日에 서울에 모여서 後進과 沈滯의 荒蕪地에 圖書館事業의 飛躍的發展을 가져올 기틀을 마련하기爲하여 眞摯하게 論議하였습니다.

市民生活의 據點인 公共圖書館業務와 計劃의 頭腦를 提供하는 特殊圖書館, 大學教育의 센터를 이루는 大學圖書館, 學校教育의 心臟의 口實을 擔當하는 學校圖書館,

이 모든 先進 여러나라의 概念에서 멀리 떨어져 아직도 太古의 靜寂속에서 이땅의 圖書館은 그進路를 摸索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全國圖書館人들은 政府와 協力하여 이 나라 圖書館事業의 革命을 爲하여 우리의 가진바 技術과 情熱을 발칠 것을 다시금 굳게 決議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難産을 거듭하던 圖書館法의 制定公布를 目前에 두고 政府의 果敢한 施策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再建國民運動과 經濟5個年計劃도 이러한 발판위에서 名實共히 成就될수 있다는 것을 確信하여 이에 다음과 같은 事項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1962年7月22日

全國圖書館大會

全國192個圖書館人代表

同大會長 閔泳珪

(장내 박수)

(建議事項은 會長, 副會長(2人) 그리고 朴熙永, 金世翊, 明在暉, 李鍾文等 7人 委員會에서 作成 建議키로 滿場一致可 決議)